

'96 세계 전자부품 전망

조 사 부

1. 미국 전자부품 시장 전망

미국 전자부품업체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90년대 초반의 침체를 벗어나 '94년에는 출하액으로 전년대비 두자리대의 신장을 기록하였고, '95년에도 동 20%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계 부품메이커도 전년대비 20~30%의 매상 증가를 전망하는 등, 상승세에 탄력이 붙고 있다.

전자부품의 수요를 견인하는 것은 PC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와 통신관련 시장의 확대에 이어 더하여 자동차, 칼라TV 등 가정용 전자기기의 북미 생산확대 기운의 고조가 관련 전자부품의 수요층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계 부품 각사는 이러한 수요확대의 움직임에 대응해 환율변동 대책을 포함한 현지 생산증강

의 검토를 진행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영업체제의 강화와 수정을 서둘러 수요확대의 파도를 타려고 하고 있다.

상무성의 자료를 베이스로한 미국전자공업회(EIA)의 발표에 의하면 미국 전자부품의 공장출하액은 정체가 계속된 '91년부터 '92년에 상승세로 전환해, '93년에는 전년대비 9.9% 증가, 이어 '94년에는 동 20% 증가에 달해 본격적인 회복은 보였으나 '95년도 신장율이 20% 증가한 1,050억불에 달할 전망이다. 호황의 요인은 정보기기, 통신관련기기 시장의 확대, PC는 출하베이스로 전년대비 20% 증가라는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한편, 휴대전화는 상반기에 순조로이 신장하였으나, 하반기에는 대형 메이커가 생산조정에 들어간 점도 있어 수요가 급격히 하락해

관련 부품이 영향을 받았으나 연간으로는 전년대비 약 20%의 증가는 무난할 것 같다.

부품메이커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세트 메이커에 의한 북미 생산 확대의 움직임으로, '94년 1월에 발효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과 환율변동에 대응해 북미에서의 TV, 자동차의 내제화가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정보관련으로는 반도체 대기업인 인텔에 의한 PC 마더보드 사업의 확대가 미국의 커다란 관련부품 수요를 창출해 낸 것이 상징적인 것이다. '95년의 북미에서의 TV 판매대수는 전년대비 5% 전후의 신장률에 머물 전망이지만 관련부품의 수요는 제품에 따라 15% 전후로 신장한 메이커도 있다.

자동차는 당초의 상향 예상을 뒤엎고 3% 정도의 마이너스가 예상되고 있으나, 일본계 메이커

를 중심으로한 복미 생산의 증가, 나아가 전자화율(電裝化率)의 향상이 부품수요를 늘렸다. 무라다 일렉트로닉스 노이스 아메리카의 코포레이트 매니저인 此內一秀氏は 「적층 세라믹 콘덴서와 압전 세라믹 발전자는 자동차의 전자화율의 향상에 의해 예상신장률이 크다」고 말한다. 단, 자동차, TV의 복미생산확대가 금방 관련부품의 복미 수요를 낳는다고는 말할 수 없다. 부품에 따라서는 동남아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쪽이 코스트상으로 유리한 면도 있어 언제 어떤 제품(부품)의 수요가 복미에서 생산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계 부품메이커에 의한 복미 생산증가의 움직임도 활발한데 TDK아메리카는 「'95년에는 대형 건설투자를 단행해, 현지생산을 더욱 확충한 한해였다」고 鈴木和正 부사장은 말한다.

그결과 자동차, TV관련 부품의 매상고가 대폭적인 증가를 기록하여 「'95년에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50% 현지 생산을 목표로 하였던 바, 생산확충을 상회하는 신장으로 목표달성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96년에는 실현할 계획이다」라고 동 부사장은 말하고 있다.

「시장이 있는 곳에서 생산 공급한다」고 하는 무라다 「환율변동에의 대응, NAFTA에의 대응, 나아가 자동차관련 단골거래처에 의한 부품의 현지조달을 향상에의 대응으로써 현지생산의 강화는 언제

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금후의 수요동향을 보면서 현지생산의 증강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此內 매니저는 말한다.

생산체제의 수정과 동시에, 영업체제의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서 부상하고 있는데, 미쯔미전기는 영업거점을 증설하였고, 알프스전기는 기구개혁에 의해 고객의 Needs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90%이상이 직판체제인 TDK는 영업담당자의 철저한 교육에 의한 전개를 추진하고 있으며, 무라다는 OEM 단골거래처 판매망과 디스트리뷰터 판매조직을 확립하고 있어 금후에는 젊은 영업담당의 등용에 의한 기동력의 강화와 세일즈 엔지니어의 강화에 의한 기술서비스의 향상을 중점 거래처에 집중할 계획이다. 수요확대와 동시에 생산과 영업의 양면에서 수정을 요구받고 있는 일본계 메이커는 차기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2. 유럽 전자부품 시장 전망

유럽의 전자기기업체는 이동체통신망의 확대와 자동차부품의 전자화에 의해 계속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정체기미를 나타낸 가정용 전자기기 시장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동체통신시장은 유럽공통규격(GSM)의 디지털 셀룰라 휴대전화로 독일을 중심으로 확대일로를

견고있어, 1800MHz의 PCS(일본의 PCS에 상당)의 신장도 기대된다. GSM서비스는 유럽연합(EU) 각국에서 복수의 사업자가 가동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음성만의 단계에서 SMS(숏 메세지 서비스)등 부가기능이 더해져 「페이즈2(제2단계)」를 맞이하고 있으며, 나아가 멀티미디어 기능등을 가미한 「페이즈 2 플라스」로 진행중에 있다.

'96년에는 유럽공통규격의 디지털 코드레스 전화 DECT 시장이 활성화되고 장래에는 GSM과의 듀얼기능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부품메이커가 관여하는 분야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휴대전화의 필터 등 범용전자부품은 전년이상으로 신장해 메이커는 바빠질 것으로 보이나 수량이 증가하는 반면 가격경쟁이 격화하여 오히려 어려운 한해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자동차 부품의 전자화는 반도체 관련을 포함해 2천년에는 구동장치가 34%, 안전장치가 19%, 차체부품이 15% 등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試算에 의하면 '94년의 자동차 전자부품의 세계 시장은 460억불로 2천년에는 '94년 대비 61% 증가한 740억불에 달해, 평균적으로 매년 20% 배이스로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이중 유럽시장의 규모는 세계시장의 약 1/4을 점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메이커 각사는 '98/'99년을 기점으로 모델을 체인지하기

위한 준비에 바쁘다. 「자동차메이커의 전자부품 설계도 구체화해 거의 완성단계에 있으며, 전자화가 진행되어 자동차 내용의 변화가 현저해질 것이다」라고 부품메이커는 밝은 표정이다.

위성방송수신기는 대형메이커뿐만 아니라 중소메이커도 견조한 신장을 보이고 있다. '96년에는 애틀란타 올림픽, 유럽축구선수권대회 등 큰 스포츠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영상분야는 어느정도 기대를 걸고 있으며, 부품메이커도 이러한 이벤트의 부품업체에의 과급에 기대를 갖고 있다.

유럽의 가전시장은 전반적으로 꾸준한 상승경향에 있으나 '95년에는 전년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부품메이커가 의존하고 있는 VTR의 하락이 가전시장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또 오디오제품은 수입이 많아 부품메이커가 들어갈 분야가 좁기 때문에 훨씬 격렬한 경쟁을 해야만 한다.

PC의 세계적인 수요증가는 유럽의 부품메이커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전자부품메이커는 PC 주변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 외에도 통신계와 조합하여 멀티미디어의 Tool로써 PC 주변기기의 Need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3. 동남아시아 전자부품 시장 전망

일본계는 물론 대만, 한국을 비롯해 구미계의 세트메이커 및 부

품메이커가 급속히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은 여전히 활황이 예상된다.

분명히 작년 여름 이후, AV기기의 드라스틱한 생산조정의 영향을 받아 관련부품의 생산도 슬로우 다운을 여지없이 당해야 했지만 2월 하순부터 3월에 걸쳐서는 회복을 예상하는 부품메이커도 많다.

이에 더하여, PC, 주변기기, OA기기, 휴대전화를 비롯한 통신기기는 세트 각사가 더욱 생산이전을 가속화하고 있어 부품 수요 전체로써는 수급상황이 호조를 떨것은 틀림없을 것 같다.

작년 후반, 1년반 만에 수주 수준이 침체한 말레이시아도 VTR과 오디오기기의 재조정정이 일단락되면 그 생산능력으로 볼때 ASEAN지역에 있어서의 최대의 공급거점으로써의 활력이 기대된다.

단, 심각한 인력부족과 범용 저가제품(세트, 부품 모두)의 중국공장의 재 이전으로 생산품목의 수정, 생산의 합리화, 자동화가 금년에는 더욱 진행될 것이다.

태국에 있어서도 일본계 부품메이커에 있어서의 오디오, 비디오용 부품의 생산은 '95년 여름 이후 감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은 앞으로 1~2개월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거나, 한편으로는 세트의 재고, 생산조정은 머지않아 종료하고 다시 금년봄부터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강하다.

이미 계획중인 설비투자를 완료한 기업에 있어서는 생산성 향상에 관한 생산기술면에서의 개선을 추구하고 있으며 투자중에 있는 기업도 여전히 많아 ASEAN지역의 소비, 구미시장, 나아가 일본에의 수출체제의 강화에 여념이 없다.

특히, 태국 국내의 부품수요는 세트메이커의 증산 대응에 따라 연을 두자리 성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지 소비에의 대응을 강화하는 움직임은 금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출에 관해서는 AV기이용 부품에 머물지 않고 PC관련, 이동체통신용 등 생산품목을 확충하는 움직임도 표면화하고 있어, 금년에는 현지에서의 각사의 사업내용이 훨씬 충실해지는 한해가 될것 같다.

특히 각사에 있어서의 재투자에 대해서는 태국정부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내걸고 있는 점과 노동임금의 문제 등으로 방콕시 주변의 공장단지를 벗어나 지방에 공장을 건설하는 움직임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중장기적인 국내 소비의 확대를 발판으로 수출거점으로써 최근 수년간 진출이 계속되었던 중국이었으나, 그 스피드는 '95년에는 다소 둔화되었다. 일본계 부품각사 중에서도 코일, 트랜스, 모터 등 특히 노동력을 요하는 권선 응용부품의 중국생산이 앞서 이루어졌는데 이미 이러한 권선 응용부품은 세계시장에 대한 일대 공급기지화

하고 있다. 게다가 전자부품은 콘덴서, 저항기라고 하는 범용부품의 현지 생산규모가 확대해 왔고, 모듈이나 유니트 제품, 나아가 웨이트 코어를 비롯한 전자재료에 까지 중국생산의 품종은 확대를 보였다.

주요 부품메이커가 위탁가공, 합작, 독자 자본의 어느쪽인가의

스타일로 거의 중국에서의 제1단계의 진출을 끝낸 점도 있어, 투자 스피드는 감소 경향에 있다.

그러나 투자 그 자체는 이제까지의 일본, 홍콩의 사업거점으로 부터의 것에서 대만이나 한국에 진출해 있던 그룹회사가 투자를 행하는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부품시장은 AV기

기나 PC관련의 생산증대, 나아가 인프라계에서의 수요층 등에서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생산은 수출거점으로써의 기능은 강화하면서도, 내수에서의 대응도 금후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자료 : 전파신문〉

아. 싱가포르의 가전시장

경제는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싱가포르 달러의 평가절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임금상승이 계속되어 실질임금은 대폭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싱가포르 달러의 평가절상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정부의 정책에는 순풍이 되고 있지만, 예상외의 스피드에 대한

공동화(空洞化)대책과 어떻게 균형을 맞춰갈지가 주목되고 있다.

자. 인도네시아의 가전시장

“가전기기 원년”이라고 하는 말로 대표되듯이 인도네시아 경제는 라이프 오프의 시기를 맞고 있다. 전화보급률도 50%를 초과하였으며, '94년의 칼라TV 수요는 120만대로 전년대비 130%의 증

가를 보였고 '95년의 냉장고 수요도 1백만대로 칼라TV와 동일한 증가율인 전년대비 130% 증가를 기록하였다. 인프라로써 도로정비에 문제는 있으나 관세인하와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료 : 전파신문〉